

PKM GALLERY

«From Hands»

February 4 – March 21, 2026 | PKM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7길 40 | T. 02 734 9467

PKM 갤러리는 한 해의 포문을 여는 전시로 오는 2 월 4 일부터 3 월 21 일까지 기획단체전 «From Hands»를 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순수미술과 공예예술'의 교차 지점에서 손의 감각에 집중하는 6 명의 작가 – 김시영 b. 1957, 이인진 b. 1957, 이명진 b. 1995, 구현모 b. 1974, 홍영인 b. 1972, 정창섭 1927-2011 – 의 '핸드 크래프트 handcraft' 작업에 주목한다.

기계와 디지털이 인간의 지능을 장악하는 현 시대, 몸과 맞닿는 경험은 더욱 소중해졌다. 알고리즘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끝의 떨림과 감촉은 인공지능 시대에 역설적으로 인간의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듯하다. «From Hands»에서는 미끄러운 스크린 너머의 가 닿을 수 없는 가상세계를 뒤로 하고, 물질과의 직접적인 스킨십을 통해 만들어진 순수미술과 공예의 경계 없는 조형 세계를 조명한다.

김시영은 흙과 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 전통 고려 흑자를 재현하는 데에서 나아가, 특유의 빛깔과 질감을 지닌 흑자 요변 煙變을 탄생시킨 도자 장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새로운 소우주를 상징하는 <플래닛 Planet>, 연작의 흑자 달항아리, 그릇, 조각 작업 등이 소개된다. 2023 년 로에베 재단 공예상 파이널리스트에 오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인진은 유약 없이 흙과 고온, 장작의 재만을 활용하는 소박한 토기를 제작해 왔다. 전시는 그가 근래 어루만진 옹기와 화병, 다완 등을 공개한다. 젊은 작가 이명진은 도예의 코일링 기법¹ 을 매스, 기둥 등 건축의 기본 요소와 종합한 현대적인 도예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예와 조소를 전공한 구현모는 흙, 나무 등의 자연 소재와 활동과 같은 인공 재료를 손의 섬세함으로 유연하게 결합해 왔다. 이번 단체전에서는 그의 최신 작업들이 전시장 바닥과 벽을 아울러 설치된다. 텍스타일과 조각, 퍼포먼스를 주요 매체로 하는 홍영인은 그의 오랜 관심사인 여성 직공의 이야기와 동물의 울음 소리, 거리의 그래피티라는 개별의 서사들을 자수로 표현한 근작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창섭의 1990-2000 년대 닥종이 회화가 출품된다. 닥 껍질 섬유를 주무르고 펼쳐 완성한 그의 작업은 손의 촉감으로 일궈낸 물아일체의 경지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 다르면서도 닮은 두 분야의 작업을 구분 없이 살피는 본 전시는, 보는 것을 넘어 각기 다른 손의 움직임이 주고받는 온기 있는 대화를 관객에게 들려 줄 것이다.

¹ 점토를 로프 형태로 길게 늘여 밑판부터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법